

수확기 전분지수는 ‘썸머킹’은 1.9, ‘쓰가루’는 3.6~3.8로 ‘썸머킹’은 ‘쓰가루’에 비하여 지역별 차이 없이 전분지수가 낮았다.

표 10. ‘썸머킹’ 품종의 과실 품질특성

품종명	지역	연도	색도 *			당도 (°Bx)	산함량 (%)	경도 (N)	전분지수 *
			L	a	b				
썸머킹	거창읍 정장리	'14년	51.9	21.1	27.7	13.4	0.46	48.2	1.2
		'15년	57.7	9.4	35.1	12.9	0.48	53.0	2.5
		'16년	58.2	6.8	35.8	13.7	0.47	58.7	2.1
		평균	55.9	12.4	32.9	13.3	0.47	53.3	1.9
	고제면 봉계리	'14년	45.4	27.1	22.0	12.3	0.39	39.3	1.2
		'15년	56.4	12.6	31.9	12.7	0.47	57.9	2.7
		'16년	54.4	9.8	30.4	12.4	0.44	59.4	1.7
		평균	52.1	16.5	28.1	12.5	0.43	52.2	1.9
쓰가루 (대조)	거창읍 정장리	'14년	56.8	12.4	29.4	11.5	0.32	39.3	3.2
		'15년	66.4	-5.3	42.2	11.4	0.40	46.4	4.7
		'16년	67.0	-9.5	43.8	11.2	0.37	51.7	3.4
		평균	63.4	-0.8	38.5	11.4	0.36	45.8	3.8
	고제면 봉계리	'14년	63.2	-5.0	43.6	11.9	0.34	47.2	3.7
		'15년	62.6	-5.7	44.8	11.0	0.27	45.8	4.1
		'16년	65.3	-10.7	39.4	9.9	0.37	55.7	3.0
		평균	63.7	-7.1	42.6	10.9	0.32	49.6	3.6

* 색도 :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 전분지수(과실내 전분과 요오드용액과의 반응정도): 1(적숙), 2(미숙~적숙), 3~5(미숙)

표 11에서 ‘썸머킹’의 탄저병 발생률은 고제면 봉계리는 1.2%, 거창읍 정장리가 2.3% 이었으며, ‘썸머킹’의 탄저병 발생은 ‘쓰가루’와 차이가 없었다. ‘썸머킹’의 탄저병 발생이 거창읍 정장리가 고제면 봉계리에 비하여 많았던 원인은 생육기에 일 평균온도가 높아 탄저병 발생률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1. ‘썸머킹’ 품종의 병 발생 정도

품종명	지역	연도	탄저병 (%)	고두증상 (%)	겉무늬썩음병 (%)
썸머킹	거창읍 정장리	'14년	4.4	0	0
		'15년	0.4	0	0
		'16년	2.2	0	0.1
		평균	2.3	0	0
	고제면 봉계리	'14년	3.7	0	0
		'15년	0	0	0
		'16년	0	0	0
		평균	1.2	0	0
쓰가루 (대비)	거창읍 정장리	'14년	0	0	0
		'15년	0	0	0
		'16년	6.7	0	0
		평균	2.2	0	0
	고제면 봉계리	'14년	1.5	0	0
		'15년	0	0	0
		'16년	0	0	0
		평균	0.5	0	0

* 밀증상 : 0(무), 1(1% 이하), 3(5% 이하), 5(25% 이하)